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8월 2일) 2024년 9월 4일 수요일



한국 · 불교, 널리 알릴게요! 연등회보존위원회는 8월 24~25일 1박 2일간 서산 보원사 일대에서 연등회에서 활동할 15명의 외국인 서포터즈를 위해 캠핑에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캠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포터즈의 국적은 러시아, 아르헨티나, 베트남, 아르메니아, 멕시코, 브라질 등 6개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학생, 직장인들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50여 명의 연등회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행사를 돕는다. 글 ·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선명상 지도법사·지도자 양성 나선다

9월 12~15일 지도법사 과정 개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50명 대상
10월 중 재가 지도자 과정 진행
지도 인력 확보로 선명사 대중화 담양에 선명상 센터 건립 추진도

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도 인력 양성에 나선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8월 24~25일 열린 '선명상 아카데미 템플스테이' 회향사에서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도법사와 지도자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원 스님은 "선명상 강의를 수강한 인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명상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원 스님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선명상 지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를 지도할 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차적으로 스님 50명을 한정해 수강자를 모집하며 이중 시험을 거쳐 약 40%를 지도법사로 선발할 계획이다. 재가 지도자 과정은 오는 10월 중 개설한다.

성원 스님은 "향후 6개월 주기로 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라며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원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스님은 "현재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담양에 선명상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선명상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부지와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라며 "서울 안암동에는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사찰 지원과 지도자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선명상 중앙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28일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와 10월 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국제선명상대회의 적극적인 참석도 독려하며, 선명상 아카데미 수료자들에게 선명상 대중화의 선두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광화문, 9월 28일 명상중심된다

조계종, 광화문 불교도대법회
사부대중 3만명 동참…5분 명상
108 선명상법 제시로 마음평화
수계의식·승보공양·음악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초가을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선명상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5분 선명상'을 비롯해 조계종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 불교도 대법회' 봉행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사부대중 3만 명이 동참하는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의식, 승보공양, 국제선명상대회,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 전통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함께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체 규범 제시할 '수계의식'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수계의식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수지하는 자리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등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한다. 이번 수계의식은 전통 불교의식의 장엄한 연출효과를 통한 국민공감과 감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원로의장과 전계대화상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계법사로 나선다. 장궤합장과 큰절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되며 수계법회의 여법함과 장엄함을 위해 무대 앞 중앙 600석은 좌식으로 준비됐다. 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부문별(신도회, 각급 기관 및 단체, 노동자)로 600여 명을 사전 선발한다.

'승보공양'으로 신뢰 · 공경의 메시지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승보공양법회는 승보공양 의식을 통해 신뢰와 존경, 존중과 공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율은 오계의 덕목과 내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공경의식을 시연한다. 조계종은 승보공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ARS도 개설했다. 060-700-7070으로 전화하면 한 통화에 1만원을 후원할 수 있다.

'5분 명상'으로 순간의 고요함 만끽

오후 4시부터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가 열린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한국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 국민 행복의 마중물이 될 선명상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막식에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계종이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선포가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이 '5분 명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광화문 광장은 3만여 불자들이 동참한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이 연출될 전망이다. 선명상이 이어지는 5분간, 광화문 일대가 고요와 평안으로 물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명상 후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기도' 합송으로 국제선명상 대회는 마무리 된다. 조계종은 이후 전 국민이 하루 5분간 선명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은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계층간 갈등, 무한경쟁,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병리현상 극복을 위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혁명을 이끌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선명상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기대했다.

감동 · 환희 넘치는 행복 음악회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음악회는 내 안의 평화, 국민화합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감동과 환희, 행복의 무대로 꾸며진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사회로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크루', 가수 최예림과 김태연, 뮤지컬 배우 최정원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조계종은 대형LED를 활용한 무대 연출과 특수효과를 통해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이는 한편 K-선명상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23일부터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9월 23~28일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주제로 전통등이 전시된다. 금산사 5층 석탑등, 감은사지 석탑등, 미륵사지 9층 석탑등, 불국사 석가탑등, 사유의 공간, 비천등, 연꽃등 등이 전시된다. 9월 25~27일에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길'을 주제로 전통문화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2면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 인터뷰 이어짐

현대불교신문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모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공모 직위 : 사장
- 임 기 : 3년
- 자격 요건
  -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불교언론사로서 정론직필하며,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 국제 감각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서명 날인)
  -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매 내외)
  - 경영계획서 1부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A4용지 6매 내외)
  - 이력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기간 등
  - 제출 기간 : **8월 21일(수)부터 9월 4일(수)까지**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 등기우편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길 23-26 현대불교 부산지사)
    – 이메일 (wiseway3@hanmail.net)
  - * 응모 접수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면접 심사 (필요 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기 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사(02-2004-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dongguk UNIVERSITY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3년연속 TOP10 8위



* 선택 가능 전공 예시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좋은 선택
열린전공학부
입학 후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융합적 사고를 함양합니다.

열린전공학부(모집단위 광역화)
무전공으로 입학 후 1년 동안 전공탐색 기간을 거친 후 2학년 진급 시 원하는 전공 선택 (일부 전공은 선택 범위에서 제외)
- 인문/자연 문과/이과/법과/사회과학/경찰사법/경영/공과/첨단융합대학 내 모든 전공 선택 가능
- 바이오시스템대학(단과대학 모집) 바이오시스템대학 4개 학과 중 선택 가능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2024.09.10.(화) ~ 09.12.(목)